

# 바이러스 걱정 이제 NO... 우수 씨마늘 보급 확대

### 농진청, 기존 1품종에서 3품종으로 지역 농업기술 등 통해 '남도' 보다 덜 맵고 가공하기 쉬운 '대서'·'홍산' 추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바이러스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는 우수 씨마늘을 기존 1품종에서 3품종으로 확대해 지역 농업기술 등을 통해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마늘은 마늘집재바이러스(GLV), 양파황화위축바이러스(OYDV), 리크황화줄무늬바이러스(LYSV) 등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기 쉽다. 바이러스에 단독 감염된 마늘은 20~60% 복합 감염된 마늘은 80%까지 수량이 줄어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진청은 마늘 조직 중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성장점 을 때 난 뒤 이를 배양·증식해 보급

하는 성장점 배양 씨마늘 보급 사업을 2010년부터 펼쳐오고 있다.

그동안은 '남도' 품종 위주로 보급해 왔지만 덜 맵고 가공하기 쉬우며 새 품종을 원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대서' 품종과 자체 개발한 '홍산' 품종을 추가, 총 3품종을 본격 분양한다.

이번 씨마늘 보급은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담당자, 씨마늘 공급 농가가 참여하는 마늘 성장점 유래 유량 증구(씨알) 보급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남도'와 '대서' 품종 200kg은 제주를 비롯해 경남 남해, 전남 무안 등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 분

양하고 '홍산' 480kg은 통상실시 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센터나 씨마늘 공급 농가를 통해 바이러스 발병 확률을 줄인 우수 씨마늘을 공급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체소과 이우문 과장은 "대서와 '홍산'은 지난해 시범 분양 시 반응이 좋아 본격 분양하기로 했다"며 "주요 마늘 품종의 우량 증구 생산 보급 체계 확립을 통해 농가에서 바이러스 걱정 없이 마늘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남도' 성장점 씨마늘을 이용해 마늘을 재배 중인 한 농가는 "일반 마늘보다 수량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성장점 씨마늘을 재배하며 수익이 30% 이상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도시로 확장 이전

###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새롭게 업무 시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주 민성동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로 확장·이전해 지난 19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2014년 11월 개소 이후 올해 설립 7년차를 맞이하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 및 성장사다리 확충 지원, 창업자 발굴·육성사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전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테크비즈니스센터 내 4층과 5층을 전용공간으로 활용해 청년허브센터를 비롯한 20개사 규모의 집중보육실, 온라인 화상회의실, 시제품제작실 등을 창업자에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이전한 센터에는 테크노파크, 탄소중립 등 전략산업분야 핵심기관들이 인접하고 있어 제2벤처 붐 확산과 함께 창업지원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확대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욱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을 계기로 지역 연구·창업지원기관과 연계·협업해 제2벤처 붐 선도하는 지역혁신 허브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3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페이퍼 리스 진행 '녹색경영' 실천

### 전북은행, 올 3분기 경영전략회의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0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3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원 및 영업장장,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서한국 행장은 하반기 경영전략 및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며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반기 중점추진 전략인 영업기반 및 비이자 이익 기반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디지털전환 차별화, 리스크 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전략 추진과 지속성장 기반을 한층 견고히 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별도의 인쇄자료 없이 참석자 전원 태블릿PC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인쇄물 약 1,200부 가량의 종이를 절감했으며 이는 30년생 임목 한그루 분량의 절감 효과로, 앞으로 대부분의 사내 업무 진행에도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서한국 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각 영업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경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군산농협은 20일 군산시 조촌동 군산농협 본점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점했다.

##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 제공

### 전북농협-군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군산농협(조합장 박형기)은 20일 군산시 조촌동 군산농협 본점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점했다.

이날 개점행사는 김영준 군산시 장 김영일 군산시 부시장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 등이 함께해 로컬푸드 농산물 홍보에 나섰다.

전체면적 680m<sup>2</sup> 규모로 당일 250여 농가의 신선농산물과 지역 내

마을기업 등 농촌융복합기업 제품을 두루 갖춘 로컬푸드 직매장 175m<sup>2</sup>를 중심으로 한 하나마트와 휴식공간인 카페마포창고, 아이테라스(2층)가 마련되어 있다. 기존 27년 동안 영업을 해왔던 금융점포는 2층으로 이전해 한 곳에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수송·미장지구와 디오션시티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에 시청, 법원, 교육청, 세무서 등 주요 공공서가 있어 많은 유통인구로 소비층이 확대되면 로컬푸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기 조합장은 "로컬푸드는 지역을 살리는 구심체"라면서 "생산자, 자민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농협 관계자는 "군산시 푸드플랜과 연계해 사민 진부농약 관리 인 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출하농가와 연계한 소비자 체험활동, 군산농협 문해대학과 연계한 이벤트 홍보활동 등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미용사 등 농촌융복합기업 제품을 두루 갖춘 로컬푸드 직매장 175m<sup>2</sup>를 중심으로 한 하나마트와 휴식공간인 카페마포창고, 아이테라스(2층)가 마련되어 있다. 기존 27년 동안 영업을 해왔던 금융점포는 2층으로 이전해 한 곳에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수송·미장지구와 디오션시티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에 시청, 법원, 교육청, 세무서 등 주요 공공서가 있어 많은 유통인구로 소비층이 확대되면 로컬푸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기 조합장은 "로컬푸드는 지역을 살리는 구심체"라면서 "생산자, 자민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농협 관계자는 "군산시 푸드플랜과 연계해 사민 진부농약 관리 인 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출하농가와 연계한 소비자 체험활동, 군산농협 문해대학과 연계한 이벤트 홍보활동 등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경진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애로 해소·역량 강화 지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를 통한 도내 소상공인협동조합 경영 애로 해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경진원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상담, 교육,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협업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분야 심층상담을 통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법률·법무(설립, 신고 변경 절차 등), 인사·노무(조직관리, 직무분석 등), 회계·세무(부가세 신고, 재무제표 이해 등) 전문분야 지문을 무료로 지원한다. 1차 상담 후 원하는 분야의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협동조합원과 임직원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비즈니스 모델 수립, 매장 및 온라인 마케팅 전략,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희망하는 교육 분야를 신청하면 강사가 편견되어 무상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도내 농식품 기업 제품 고급화 앞장

### 전북바이오진흥원, 휴먼에노스 시제품 제작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꾸어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기업 (유)휴먼에노스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혁신성장 바꾸어 지원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우수기업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해 지역 내 주력산업 연관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제품 제작은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십전대보탕과 관절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식이이황 Methyl Sulfonyl Methane)을 혼합해 먹기 쉽고 장기보관이 가능한 정제 제형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기존의 십전대보탕은 우수 효능의 전통한약임에도 불구하고 액상형태로 복용과 보관이 용이하지 못했으나 바이오진흥원의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유)휴먼에노스는 도내 완주 소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으로, 완주군에서 생산하는 상추, 콩, 양파 등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동안 정제 등의 건강기능식품 제형화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시제품 제작으로 애로해결 및 제품다변화를 통한 매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진흥원은 건강기능식품 GMP 제조생산 시설을 보유해 기능성 원료의 발효, 추출, 건조를 통한 소재화와 이를 정제, 과립, 캡슐 등의 제형화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식품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이 다양한 제형의 시제품 제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공통 연구를 통하여 제품 고급화를 위한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중장년 창업 '첫 발' ... 경진원, 실전과정 수료식

###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진행 17명 배출 특례보증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도중장년기술창업센터(이하 중장년 센터)가 중장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된 2021년 실전창업과정의 수료식을 지난 15일 개최했다.

실전창업과정은 중장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략 수립 및 실전 활용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주간 총 40시간 동안 기업가 정신 및 리더십, 창업의 이해와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설계, 기술창업 마케팅의 이해, IP R&D방향 및 전략,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전략 과정으로 진행해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전북도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중장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된 2021년 실전창업과정의 수료식이 지난 15일 열렸다.

수료생들에게는 중장년 센터 입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 및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제공한다.

경진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 소신을 갖고 끝까지 교육

에 임해준 교육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전북도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지원·화상회의 공간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고창부안축협, 조합원 간담회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7회에 걸쳐 고창·부안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읍면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사중 조합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축협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으로 더 나은 축협과 조합원 소득증대와 축협 발전을 위해 2020년 TMF사료공장을 준공하였고, 2021년 태안광발전소 투자와 부안군 한우명품관 및 판매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한 조합원들의 건의사항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조합 차원에서 노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고창·김영철 기자

## 새만금 사업 활성화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맞손'

### 새만금개발공사-전주MBC, 협약 체결 방송·통신시설 등 미디어사업 유치 협력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와 전주문화방송(주)(사장 김한광, 이하 전주MBC)이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MBC 사옥에서 20일에 열린 이번 협약식은 공사 강팔문 사장과 전주MBC 김한광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새만금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콘텐츠 산업 등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사업 발굴 ▲새만금 지역 내 방송·통신시설 등 미디어사업 유치 ▲새만금지역의 인지도 제고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이다.

전주MBC 김한광 사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은 미래를 대비하는 문화·콘텐츠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며, "공사와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강팔문 사장은 "자금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육·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고군산도도 케이블카 사업 등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는 대변화의 시작점"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콘텐츠화하여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양 기관이 상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